

# 中國 青花磁器의 起源에 관한 問題

金 元 東\*

차 례

- |                     |                     |
|---------------------|---------------------|
| I. 머리말              | III. 中國연구자의 觀點      |
| II. 歐美연구자의 觀點       | 1. 中國 초기청화자기의  제작시기 |
| 1. 中國 초기청화자기의  제작시기 | 2. 中國 청화자기의  발생경위   |
| 2. 中國 청화자기의  전래경로   | IV. 맺음말             |

## I. 머리말

中國陶磁史에서 青花磁器의 起源에 관한 問題는 아직도 専門學者들간에 합의점을 도출해 내지 못한채 하나의 커다란 爭點으로 남아 있다. 中國도자 연구의 중심되는 세 軸을 말한다면 근세에 이르러 일찌기 中國도자에 관한 관심을 가지고 과학적이며 합리적인 方法론과 樣式的 分析을 도입한 영국을 중심으로 한 歐美學界와 文獻史料에 대한 識見과 考古學的인 發掘 및 陶窯址 답사 등 現場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中國學界와 이들 兩者의 方法론을 동시에 절충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日本學界를 들 수 있다.

특히 中國 青花白磁의 起源을 둘러싼 근래의 大립되는 시각은 Sir Harry Garner, John Alexander Pope, Margaret Medley를 중심으로 한 歐美學界의 14세기 기원설과 馮先銘 李汝寬 등 中國인 연구자들의 宋代 起源說이다. 中國청화백자의 기원과 관련된 問題는 지금까지 지적한 制作시기에 관한 問題 이외에도 制作하게된 경로에 대한 논란 또한 페르시아 傳來說과 中國自生說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글의 초점은 中國청화자기의 기원과 관련된 問題로 그 발생시기 및 생성경위에 대한 兩大 觀點을 살펴본 후 제 삼자적인 입장에서 어느 쪽이 객관성과 설득력이 있는 지를 고찰해 보는데 있다.

\* 大邱曉星가톨릭대학교 교수

## II. 歐美연구자의 관점

### 1. 중국 초기청화자기의 제작시기

먼저 중국에서 청화백자가 언제부터 소성되었는가 라는 제작시기에 관한 문제가 대두된다. 중국 청화백자의 제작시기에 대한 논의를 먼저 시작한 구미의 견해부터 살펴본다. 중국 청화백자에 관한 연구로 구미를 대표하는 학자로는 *Oriental Blue and White*<sup>1)</sup>를 저술한 Sir Harry Garner와 *Fourteenth Century Blue and White : A Group of Chinese Porcelain in Topkapu Saray Müzesi*<sup>2)</sup>를 저술한 John Alexander Pope과 *Yüan Porcelain and Stoneware*<sup>3)</sup>를 저술한 Margaret Medley가 있다. 이들중 John Alexander Pope은 문헌과 고고학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중국청화백자의 宋代起源說은 신빙성이 희박하다고 결론을 내린 다음 청화백자가 제작되기 시작한 정확한 시기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취해 포괄적으로 14세기라고 넓게 추정했다.<sup>4)</sup> 이에 비하여 Sir Harry Garner는 중국청화백자의 정확한 기원을 밝히기는 어렵지만, 현재 주어진 자료를 가지고 판단한다면 14세기 이전에 중국에서 청화백자는 제작되지 않았다는 좀 더 과감한 주장을 하였다. 이들 두사람보다 한 세대후의 연구자인 Margaret Medley는 좀 더 구체적으로 중국청화백자의 기원을 훨씬 시기적으로 좁혀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1954년 중국이 공산화된 이후에 발굴한 고고학적 자료에 입각해도 John Alexander Pope이 부정하고 나선 청화백자의 宋代起源說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을뿐 아니라 이와같은 입증 자료의 결핍은 오히려 宋代起源說이 근거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sup>5)</sup> 그는 중국청화백자의 기원에 대한 추정연대를 압축하여 1322에서 1330년 사이로 보았다.<sup>6)</sup> 그 첫째 이유로 14세기 이전으로 추정할 수 있는 고고학적 발굴에 의한 자료가 없는 것을 들었고, 둘째로 매우 중요한 이유는 1322년에서 1335년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알려진 蔣祈가 著述한 『陶記略』에 青花白磁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蔣祈는 景德鎮을 중심으로 한 당시의 도자제작에 관한 여러 가지 기술적인 측면으로, 시문방법, 태토와 유약의 준비과정, 가

1) Sir Harry Garner, *Oriental Blue and White*, (London : Faber and Faber 1979).

2) J.A. Pope, *Fourteenth-century Blue-and-White : a Group of Chinese Porcelains in the Topkapu Sarayi Müzesi, Istanbul*, (Washington : Freer Gallery of Art, 1952).

J.A. Pope, *Chinese Porecelain from the Ardebil Shrine*, (Washington : Freer Gallery of Art, 1956).

3) Margaret Medley, *Yüan Porcelain and Stoneware*, (London : Faber and Faber, 1974).

4) J.A. Pope, op. cit. pp.9-12.

5) Margaret Medley, op. cit. p.31.

6) Ibid., p.32.

마의 구조뿐만 아니라 도자생산의 체제와 직제, 임금, 세금관계 등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내용을 기술하고 있다. 그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당시로서는 획기적이며 혁신적인 시문방법인 청화백자에 관한 記述이 전혀 없었다. 이러한 점은 청화백자가 1322년 이전에는 제작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한다고 Medley는 보고 있다. 그리고 14세기에 제작된 청화백자에 사용된 코발트 안료는 전부 외국에서 수입하였을 뿐 아니라 당시 중국도자에 시문용으로 사용된 유일한 수입안료였는데 이 코발트 안료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는 점도, 만약 1322년 이전에 청화백자가 생산되었다면 전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인 것이다. 왜냐하면 당시의 陶工이나 陶磁生産에 관련된 匠人이나 관리들이 이를 모를 이유가 없었을 뿐 아니라 수입품인 코발트 안료와 그 사용법은 이들의 특별한 관심을 끌었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Margaret Medley는 고고학적 발굴에 의한 14세기 이전에 청화백자가 생산되었다는 立證資料의 缺乏과 蔣祈의 저술인 『陶記略』에 靑花白磁에 관한 언급이 누락된 점에 근거하여 중국에서 14세기의 一四分期 동안에 청화백자가 제작되었을 가능성을 부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중국청화백자원의 上限年代를 1322으로 일단 推定한다음 그 下限年代는 1330년 경으로 보았다. 이 하한년의 근거는 청화백자 器面에 施文된 文樣의 施文技法分析에 근거하고 있다.

예컨데 圖 1의 靑花白磁 향아리는 河北省保定市에서 出土된 것으로 현재 河北省博物館에 수장되어 있으며, 이와 비슷한 향아리로 뚜껑이 없는 것이 London의 Percival David Foundation of Chinese Art 박물관(圖 2)에도 하나, 일본에도 개인소장품이 있어, 지금까지 4점이 알려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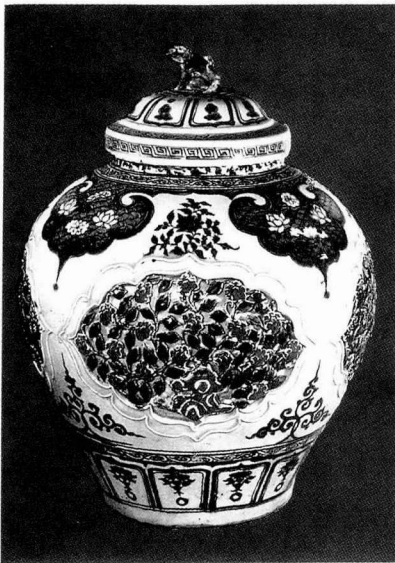


圖 1. 靑花貼花文壺, 河北省 保定市 出土 河北省博物館, 높이 41.2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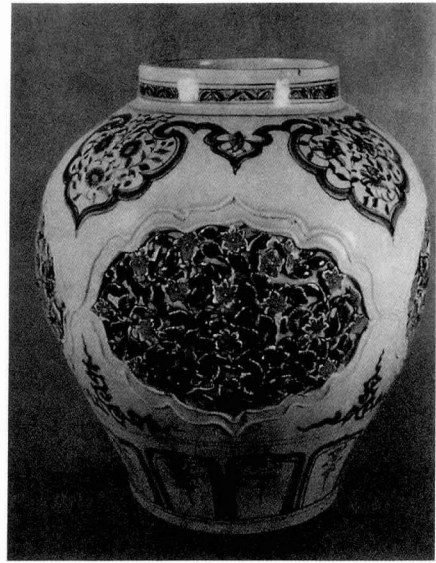


圖 2. 靑花貼花文壺, Percival David Foundation 박물관, 런던, 높이 33cm.

있는 상황이다. 이들 향아리는 景德鎮에서 제작된 것으로 코발트 안료를 사용한 유약아래의 靑花文樣과 透刻技法으로 장식한 四季花 文樣에서 꽃잎 등을 酸化銅을 이용하여 유약밑에 그린 이른바 釉裏紅 技法을 함께 사용한 점이 특이하다. 뿐만 아니라 四季花 文樣의 윤곽을 비이드(bead)기법을 이용하여 二重으로 테를 두른 점도 다른 청화백자에서 찾아보기 드문 특징이다. 그리고 코발트와 산화동을 사용하여 施文한 胎土위에 거의 투명한 유약을 씌워 구었는데, 전체적으로 약간 푸른 기가 감돌아 靑白磁에 가까운 釉藥色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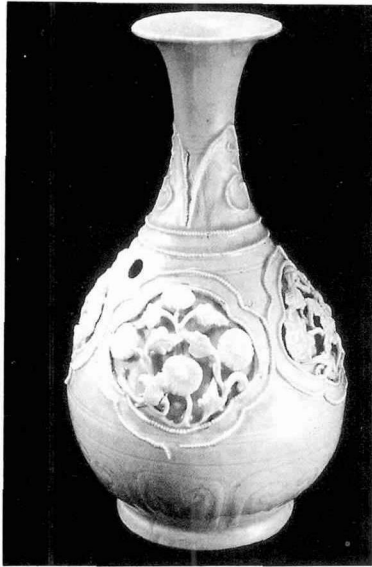


圖 3. 靑白磁貼花唐草文瓶, 아일랜드 국립 박물관, 더블린, 높이 28.3cm.

이와 비슷한 透刻技法을 사용하여 四季花를 부치고 그 테두리를 역시 같은 염주모양의 비이드로 二重으로 두르고 유약 색깔은 푸른 기미가 완연한 靑白磁貼花唐草文瓶이 현재 아일랜드 공화국의 수도 더블린의 국립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圖 3). 이 청백자병은 유럽에서 기록이 남아 있는 가장 오래된 중국도자로 흔히 'Fonthill Vase' 라고 부르는데 중국에서 서방으로 수출된후에 부착한 금속제로 된 주둥이와 손잡이 뚜껑 등이 달려 있다. 이 금속제에 헝가리 루이 대왕의 文章이 남아 있는데 루이대왕의 재위기간은 1342년에서 1382년 사이였다. 이 靑白磁瓶과 관련된 기록과 西方에 傳來되는데 소용되는 기간 등을 미루어 볼 때 대체로 1330年代에 제조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비슷한 技法의 투각 四季花와 비이드 기법으로 이중 테두리를 했으며 유약 색깔까지 비슷한 河北省 保定市 出土 청화백자 향아리 및 비슷한 3개

의 다른 향아리도 1330년대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Medley가 청화백자의 발생시기를 1322년에서 1330년 사이로 압축해 8년이란 단기간에 초점을 맞춘 것은 동서양의 기록된 자료와 장식기법을 분석한 뒤에 내린 누구보다도 과감한 주장이었다. 이 연대는 14세기의 중국청화백자로서 유일하게 제작연대를 1351년으로 확인할 수 있는 銘文이 있는 Percival David Foundation 박물관에 있는 靑花白磁大花瓶(圖 4-1) 보다 그 제작연대가 적어도 20년 앞 선 것이다. 至正十一年의 銘(圖 4-2)이 있는 이 대화병에 시문된 文樣은 문양의 多樣性, 洗鍊味, 코발트 안료를 다룬 기법의 完熟度 등을 미루어 볼 때 이미 원숙기에 접어든 것이지만 14세기 중국청화 백자의 발전단계를 살펴볼 때 기술적으로 가능한 일로 보고 있다.



圖 4-1. 青花雲龍文瓶, 至正十一年銘(1351)  
P.D.F. 박물관, 런던, 높이 약 63cm.



圖 4-2. 青花雲龍文瓶의 願文이 적힌 부분.

## 2. 중국 청화자기의 전래경로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청화백자가 발생하게된 경로에 대해서도 중국학자들의 주장과 외국학자들의 주장이 대립되고 있다. 영국을 중심으로 한 구미학자들은 대체로 페르시아 도자의 영향 및 페르시아로부터의 코발트 안료 수입설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중국학자들은 중국 내에서의 기술발전과 취향의 변화로 인한 필연적인 결과로 보아 中國自生說을 주장하고 있다. 먼저 구미학계를 대표하는 元代陶磁 연구자인 Medley는 청화백자와 같은 시문기법 및 취향에 있어서 가히 혁명적이라 할 변화가 일어나게된 배경에는 당시 중국의 사회적 경제적 상황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sup>7)</sup> 첫째 南宋末 무렵부터 성하기 시작한 해외무역이 몽고족이 집권한 元代에 들어와서는 더욱 더 번창하게 되었다. 13세기에 들어서서 海外貿易의 중심지가 지금의 廣東省 廣東에서 福建省 泉州로北上함에 따라서 景德鎮을 중심으로 한 도자생산지와 더욱 가까워지게 되어 비단과 더불어 陶磁器는 중국의 해외수출품으로 가장 각광받는 중요한 품목이 되었다. 당시 泉州에는 페르시아인 및 아랍인들이 집단으로 거주하면서 상업에 종사하였고 이때에 사용되는 언어도 페르시아어였다. 이들은 중국의 비단이나 도자기를 해외로

7) Margaret Medley, op. cit. p.32.

수출했을 뿐 아니라, 그들이 축적한 富를 이용하여 中東地域에서 중국으로 수입한 織物과 금속 제품은 중국인들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 이와 반면에 이슬람 문화권 지역에서는 이전부터 견고한 품질과 뛰어난 형태미로 인하여 중국도자에 대한 인기가 높았는데 龍泉窯에서 생산된 청자와 江西省에서 만든 靑白磁 등이 그 대표적인 例였다. 이집트의 Fostat 등지에서 출토된 수많은 중국도자파편이 이를 입증해 주고 있다. 그 당시 이슬람 문화권에서 생산된 도자는 低火度 燒成으로 軟質釉藥을 입힌 것으로 파손되기 쉬운 것이었다. 따라서 당시 중국에 居住하던가 중국을 방문한 이들 이슬람계 무역상들은 그들 자신의 資金을 동원하여 보다 더 색깔이 화사하고 장식적인 도자를 만들도록 중국도자 생산관련자들을 독려했을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외국 무역상들은 코발트 안료를 수입하여 해외시장의 취향에 부응할 수 있도록 江西省 景德鎮을 중심으로 한 도자생산지역에 공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몽고인들의 침략이후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던 상황에서 외국무역상들의 이와같은 자금 및 施文材料 支援은 당시의 도자 생산에 일대 혁신을 일으켜 일종의 기업조합 형태로 육성되어 도자생산체제가 대형화되는 경향이 뚜렷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무역상들은 주로 페르시아인이나 아랍인들로서 그들의 母國이나 당시 泉州에 거류하고 있던 그들의 同胞들과도 交流가 빈번했을 것이고 이들과 거래가 있던 중국도자생산 관계자들도 이들과 교류하면서 국외로부터 流入된 여러 가지 文物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초기의 청화백자는 형태와 문양에 있어서 주로 수출시장의 요구에 부응하여 제작되었을 것이다. 現存하고 있는 14세기 중국 청화백자의 대부분이 近東地方의 食生活과 관련이 있는 제품으로 접시인 경우 그 직경이 45cm 내외로 大型인 접이 이를 입증해주고 있다. 예컨대 터키의 이스탄불소재 Topkapi Saray 박물관에 있는 청화백자 기린문 접시(圖 5)는 직경이 46.5cm이며, 프랑스에 있는 14세기 중국청화백자인 다른 접시(圖 6)는 그 직경이 47.5cm이다. 14세기에 제작된 이들 대형 청화백자가 중국에서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반면에 터키나 이란 등 이슬람 문화권을 중심으로 한 외국에 대개 傳世品으로 留存되어 있다는 사실이 초기의 중국청화백자가 주로 수출용으로 제작되었다는 점을 입증한다고 볼 수 있다.

근동지방에서 코발트 안료를 사용하여 도자기에 문양을 그린 것은 10세기말 경이나 11세기인 Abbasid期로서 중국보다 훨씬 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가장 오래된 예로서 흘러내리는 것을 억제하기 위하여 朱錫유약과 함께 코발트를 사용한 것이다. 그 후에 투명한 알카리계 유약과 함께 사용했는데 이 때는 코발트가 溶解濟로 녹아서 흘러 내리게 되어 施文效果가 시원치 않았다. 朱錫釉의 경우는 酸化朱錫이 釉藥속에서 溶解되지 않는 침전물로 남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조금 덜 했다. 하여튼 이슬람계의 도자기에 나타난 코발트 안료의 불안정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페르시아나 아랍인 무역상이 중국 도공들에게 자문을 구했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 이때에 코발트 안료는 사용하기 쉽게 완제품이나 반제품으로 수입되어 중국 도공들에게 공급되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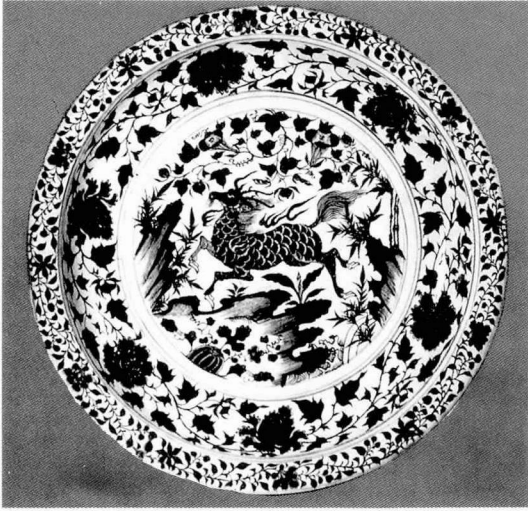


圖 5. 青花麒麟草花文접시, 퉁카피 사라이 박물관, 이스탄불, 지름 46.5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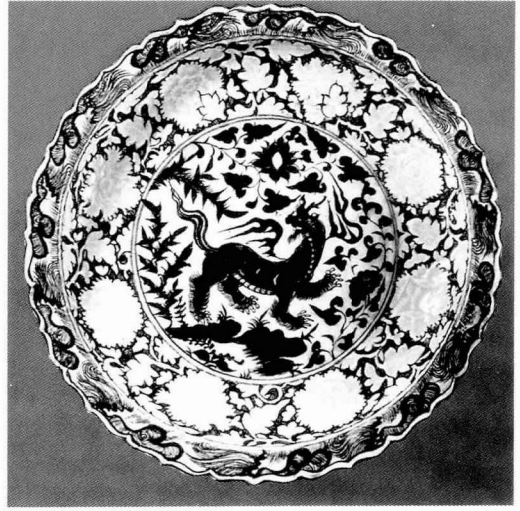


圖 6. 青花靈獸唐草文접시, Adrian-Dubouche 국립 박물관, Limoges, 지름 47.5cm.

것이다. 이들 대형청화백자에 시문된 코발트를 화학적으로 실험한 결과도 페르시아 등지에서 산출된 코발트와 성분이 비슷함이 입증되었다.<sup>8)</sup>

이 코발트 안료가 수송된 경로는 페르시아만으로 부터 인도네시아의 Sumatra까지 해상 수송한 후에 다시 Sumatra 북단에 있는 Acheh나 Pise 에서 중국으로 다시 해로로 운반 되었을 것이다. 이 두지역은 당시에 중국 페르시아 아랍 등지에서 온 상인들이 함께 거주하던 번창한 국제항이었다. Sumatra에 있던 또 다른 하나의 무역 중심지는 중국인들이 San-fo-chi(Sri Vijaya) 라 불렀는데 동해안에 있는 오늘날의 Palembang으로 확인되었다. 중국에서 16세기 이전에 코발트를 가르키는 명칭은 모두 Su나 Sa로 시작되는 三音節 名詞였다. 그 중에서 가장 보편적인 명칭은 Sumali였다. 후에 이 단어는 Sumatra란 뜻으로 사용되어 코발트 안료가 Sumatra産이라고 중국에서 잘못 알려지게 된 원인이 되었다. 그러나 사실 중국인들은 14세기, 15세기에는 Sumatra를 Sumali라고 부르지 않았다. Sumali, Sumani, Sunipo, Saponi 등은 코발트를 지칭하는 근동지방의 말이 중국에서 사용된 여러지방의 方言에 의해 발음이 다양하게 변모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또하나 유의할 점은 14세기의 모든 코발트는 해로를 통하여 수입되었으며 16세기 이전까지는 '코발트를 지칭하는 말로 回靑이나 回回靑이란 用語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후에 回靑은 수입품의 일부로 陸路를 통하여 중국에 반입되었다. 중국의 문헌에 의하면 回靑은 Samarkand 등지에서 들어왔고 이와는 달리 Sumali 靑은 Java

8) Harry Garner, "The Use of Imported and Native Cobalt in Chinese Blue and White", *Oriental Art*, 1956/2, p.48.

에서 들어왔다고 구별하고 있다.<sup>9)</sup> 하여튼 해상으로 수송된 코발트인 Sumali는 14세기 당시 주로 페르시아지방인 Kashan 등지의 광산에서 채취하여 완제품 혹은 반제품의 안료로 해로를 통하여 중국에 수송되었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본다.

### Ⅲ. 中國연구자의 관점

#### 1. 중국 초기청화자기의 제작시기

中國青花磁器에 관한 研究로 중국측 견해를 대표할 수 있는 학자로는 北京故宮博物館의 研究員이며 中國陶磁研究會 會長을 역임한 馮先銘씨가 있다. 그는 발표한 논문 등을 통하여 청화자기의 기원에 관한 학설로 宋時代說과 元時代說, 元時代後期說로 분류하면서 宋時代說은 立證할 수 있는 고고학적인 발굴을 통하여 발견된 實例가 없음을 솔직히 인정하고 있다.<sup>10)</sup> 그러나 浙江省 龍泉縣소재 北宋時代의 金沙塔塔基<sup>11)</sup>에서 出土된 青花破片(圖 7)에 관한 논의를 하면서 중국에 青花자기가 늦어도 北宋時代에 出現했다고 주장하고 있다.<sup>12)</sup> 그리고 이 破편은 中國青花白磁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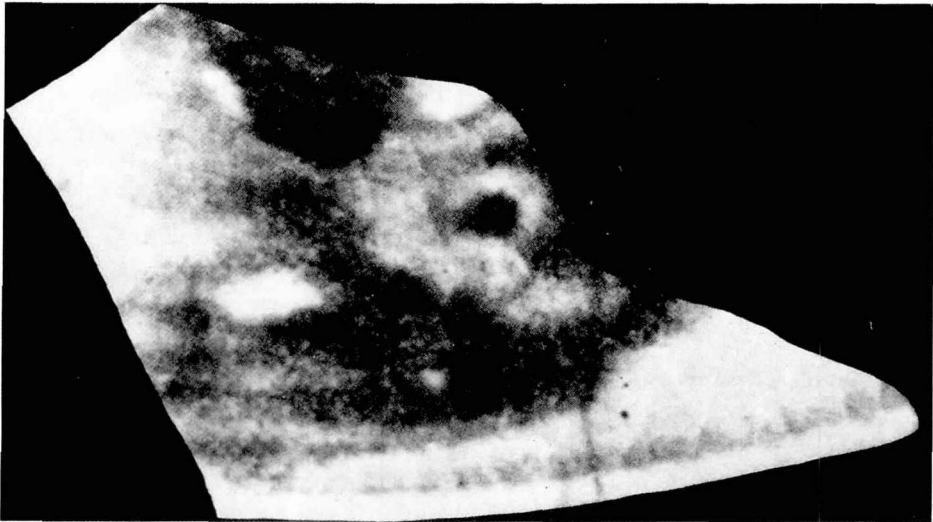


圖 7. 青花碗破片, 浙江省 龍泉縣 金沙塔 出土

9) Ibid., p.34.

10) 馮先銘, 『中國古陶磁論文集』(香港:紫禁城出版社·兩木出版社, 1987), p.295.

11) 朱伯謙, 「浙江兩處塔基出土宋青花瓷」, 『文物』(1980年 第4期).

12) 馮先銘, 앞의 책 p.296.

생산지역도 江西省 景德鎮에만 국한되어있지 않고 浙江省에서도 청화자가 제작되었음을 시사한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파편에 施文된 코발트를 上海硅酸鹽研究所에서 측정한 결과 망간의 함유율이 높아 浙江省 江山縣소재 코발트 鑛의 성분과 비슷한 점이 보고 되었다고 한다.<sup>13)</sup> 요컨대 이러한 사실은 浙江地方에서 청화백자가 소성되었을 뿐 아니라 그 시기가 景德鎮보다 200년이상 빠르다는 점에서 종래의 說을 전면적으로 수정하는 획기적인 일이라 할 수 있다. 이들 파편에 시문되어 있는 청화문양은 그 색깔이 藍色이 아닌 연한 푸른색이며 태토는 灰色이어서 色調의 對比가 선명하지 않다. 그러한 점에서 景德鎮 青花白磁와는 다르다고 보는 것이다. 이들 宋代塔基 出土의 청화백자 파편이 浙江省 어느 지역에서 생산되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唐나라 이래로 長沙窯 등의 제품을 일본에 수출할 때 浙江省을 거쳐 반출된 것을 고려하면 유약아래 시문된 이들 제품이 浙江省의 도자기 제작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으리라고 馮先銘씨는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파편이 宋代 청화백자 기원설을 시사하는 자료로 보고 있지만 北宋시대 浙江省의 청화자기 생성에 관한 경위는 현재 알려진 자료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대체로 추측할 수 있을뿐 다른 말을 할 수 없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sup>14)</sup>

다음으로 그는 연대를 더 거슬러 올라가 揚州와 洛陽에서 出土된 唐代의 青花 두 점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다. 특히 揚州의 唐時代 城에서 발굴된 15,000점 넘는 도자기 파편 가운데 도자기 베개의 파편이 출토되었는데(圖 8) 모양은 長方形이며 유약아래 마름모 꼴의 윤곽선이 푸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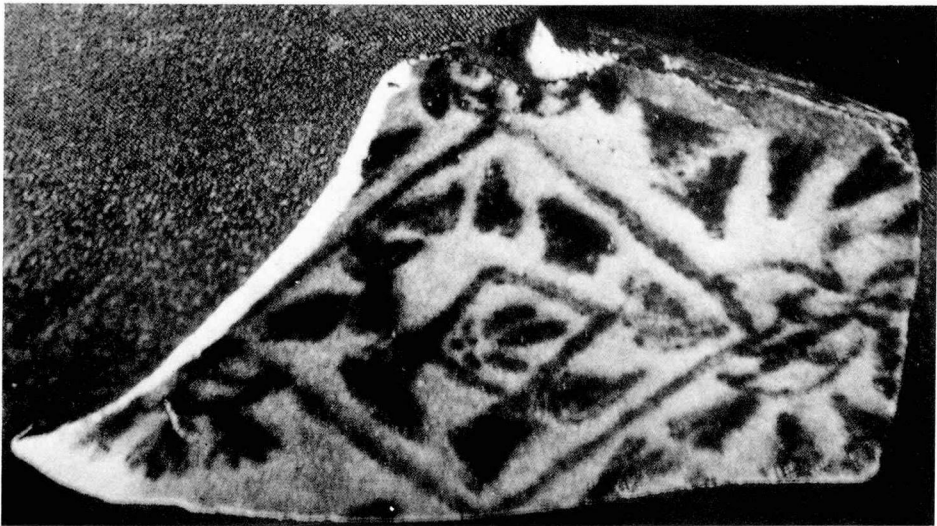


圖 8. 青花베개破片, 江蘇省 揚州市 唐城 出土, 남아있는 파편길이 8.4cm

13) 陳堯成, 郭演義, 張志剛, 「歷代青花磁器和青花色料的研究」, 『硅酸鹽學報』(1978年 第6卷 4期), p.225.

14) 馮先銘, 앞의 책 p.297.

색으로 그려져 있으며 그 안쪽에는 또 다른 마름모 꼴을 비롯한 다른 문양도 비슷한 색으로 칠해져 있다. 그릇표면의 푸른색은 상당히 선명하며, 측정결과 코발트鑼에 의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조형적으로 이 베키는 長沙窯에 비교적 가깝지만 문양에 사용된 안료의 성분은 長沙窯와는 다르다고 보고 있다. 長沙窯 도자의 유약 밑 그림에 사용된 청색안료를 세 번에 걸쳐 化學分析한 결과 이들은 呈色濟와 銅으로서 코발트가 사용된 것을 발견할 수 없었다.<sup>15)</sup> 그렇다면 이 파편에서 나타난 문양은 唐나라 때의 傳統的인 文樣과도 전혀 다른 것으로 오히려 페르시아 지방과의 관련성이 엿보인다. 하여튼 전통적인 중국적 器型에 시문된 페르시아式 文樣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正答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보고 있다. 다만 唐나라 때 揚州는 국제무역도시로서 揚州에 무역거래차 온 페르시아인이나 아랍인들이 많았으며, 이들중에서 누구인가 양주에서 陶磁에 그림을 그렸을 가능성도 추정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揚州지역 일대에서 가마터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앞으로의 연구에 기대할 수 밖에 없어 하나의 숙제로 남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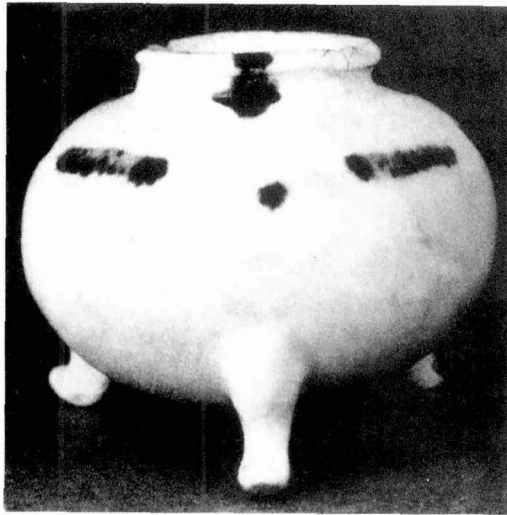


圖 9. 白釉藍彩鏡, 香港大學 馮平山博物館.

중국인 연구자 가운데 毛文寄씨는 香港大學 馮平山博物館 所藏의 唐代 白釉藍彩三足鏡 (圖 9)을 初期의 青花磁器로 소개하고 있다.<sup>16)</sup> 이 그릇은 어깨 부분에 동일 간격으로 藍色 橫線을 그은 다음 그 사이에 藍色點을 하나씩 찍고 있다. 1948년 河南省洛陽에서 出土되었다고 하는 이 三足鏡에 나타난 釉藥의 특징은 河南省鞏縣窯에서 燒成된 白磁에 가까운 편이다. 당시의 鞏縣窯에서는 백자이외에도 低溫度 燒成에 의한 三彩陶器로 藍彩 및 藍釉를 한 그릇들도 출토되고 있다. 따라서 당시 鞏縣에서는 淸화자기를 소성할 수 있는 조건인 白色의 胎土, 투명한 유약, 코발트 안료, 1150℃ 전후에 달하는 白磁의 燒成溫度

등을 갖추고 있었다고 중국 연구자들은 보고 있다. 문제는 유약아래 施文된 이와같은 藍彩文樣은 지극히 類例가 드물어 淸화백자의 唐代起源說은 중국 학자들도 그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지는 않다.

15) 馮先銘, 앞의 책 p.297.

16) Mao Wen-qi, "Early Blue and White", *Oriental Art*, Spring, 1977.

馮先銘씨의 경우는 立證資料가 부족한 唐代나 宋代起源說보다는 元代初期說을 더 설득력 있게 주장하고 있다. 1978년 杭州에서 元代至元丙子紀年墓(1276년)에서 출토된 8점의 도자기 가운데 3점은 靑白釉觀音座像(圖 10, 11)인데 머리카락, 눈, 눈섭과 복식의 주요부분이 靑花와 褐彩로 施文되어 있는데 가슴의 如意頭 文樣은 靑色이 선명하다.<sup>17)</sup> 이들 靑白釉觀音座像이 出土된 墓의 墓碑에 적힌 至元二年은 元代에 至元이란 年號를 두 번 사용했기 때문에 1276년 일수도 있고 1336년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묘비를 세운 明安答兒는 被葬者의 曾孫으로 皇慶二年(1313)에 遠征에 나가 戰死했다는 기록이 있기 때문에 묘비에 적힌 至元二年은 1276년 임이 확실하다. 이들 관음좌상에 나타난 靑花彩 즉 산화코발트는 극히 제한된 부분에만 사용되었고 褐彩와 함께 사용된 것으로 14세기 이전의 元代初期 景德鎮 靑花磁器로 馮先銘씨는



圖 10. 靑花褐彩 觀音座像, 浙江省 杭州市 出土, 높이 19.5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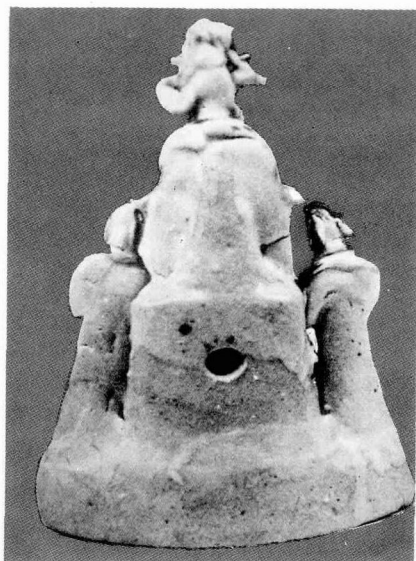


圖 11. 도판 10의 뒷면.

보고 있다. 이들 관음좌상은 3점 모두 넓게 빚었으며 가운데에 구멍이 뚫어져 있고 뒷면에는 둥근 구멍이 나있다. 杭州에서 출토된 이들 3점의 청화백자관음상에는 靑花彩(산화코발트)를 적게 사용했을 뿐 아니라 褐色彩와 함께 사용하여 元代 初期 景德鎮 靑花磁器의 모습을 보여주는 주요한 자료라 하겠다.

또 하나의 원대초기 청화자기의 예로 馮씨는 1975년 江西省九江市에 있는 延祐六年(1319) 紀

17) 杭州市文物管理委員會, 「本市發現元初觀音座像」, 『杭州日報』(1979.7.25 第三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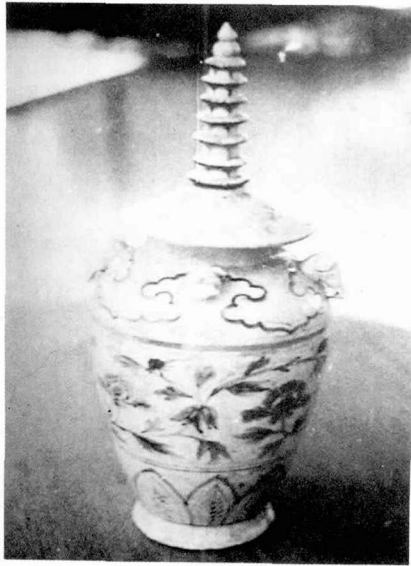


圖 12. 青花모란唐草文塔모양병, 江西省 九江市 出土, 九江市博物館, 높이 42.2cm.

年墓에서 出土된 青花塔모양병(圖 12)을 들고 있다.<sup>18)</sup> 이 병에는 세 층으로 나눈 구획안에 青花文樣이 그려져 있는데 문양의 색채에 농담이 있어 主文樣은 진하게 從屬文樣은 얇게 칠해져 있다. 문양 배치로 보아 杭州에서 출토된 前至元 青花 觀音像보다는 다양하지만 至正타입보다는 簡素한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時期的으로 보면 至元二年 觀音像(圖 10)보다는 43년 늦고, P.D.F.의 至正十一年청화백자 대화병(圖 4-1)보다 32년을 앞선 연대에 속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 두 타입의 문양을 연결하는 橋梁의 例로 볼 수 있다.

근래에 새로 출토된 紀年銘이 있는 磁器가 두점 江西省 歷史博物館에 수장 되어있다. 그중 하나는 뚜껑이 있는 青花釉裏紅貼付四神文단지이다(圖 13). 이 단지의 어깨부분에는 白虎와 靑龍을 깊은 浮彫로 만들어 마주보게 붙이고 朱雀와 玄武를 얇게 찍어 만들어 붙



圖 13. 青花釉裏紅四神文壺, 江西省歷史博物館, 높이 22cm.



圖 14. 青花釉裏紅樓閣式穀倉, 江西省歷史博物館, 높이 29.5cm.

18) 九江市博物館, 「元代青花牡丹塔蓋瓷瓶」, 『文物』(1981年 第1期).

였다. 그리고 단지의 입술가장자리 부분에 “大元至元戊寅六月壬寅吉置”라는 열두자의 靑花銘文이 적혀있다. 이 단지의 어깨부분에도 “劉大使宅凌氏用”이란 일곱자의 靑花銘文이 있다. 이 단지에 施文된 문양은 모두가 靑花(산화코발트)가 아니면 釉裏紅(산화동)으로 시문되어 있다. 단지의 제작 연대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銘文에 나타난 至元이 前後 어느 至元年間인지 밝히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문제를 명쾌하게 풀어 주는 자료가 함께 出土된 靑花釉裏紅樓閣式穀倉(圖 14)으로 곡식을 넣는 창고의 뒷면은 彼葬者에 대한 내력을 적고 있다. 이들 觀音座像은 三點 모두 器體를 얽게 빚었고 가운데가 빈 것으로 뒷면에는 등근 구멍이 나있다. 그리고 前面 中央에는 열두줄 합계 160字나 되는 내용을 酸化銅을 사용하여 楷書體로 적었다. 그 내용의 일부를 보면 彼葬者의 부인은 前 景德鎮長鄉書院의 훈장인 凌穎山의 孫女로서 前至元癸巳二月初九日戌時에 태어나 後至元戊寅五月二十三日申時에 死亡하니 享年 四六세였다라는 句節이 있다. 凌氏의 生歿年月과 나이가 이와 같이 확실하게 기록되어 있으므로 各樣 창고와 四神文 단지는 모두 後至元四年(1338)에 제작된 것을 알 수 있다. 이 두 點의 出土物이 가지는 중요성은 元代의 至正十一年銘이 있는 靑花雲龍文大花瓶에 비견할 수 있는 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보다 13년 가량 앞서 제작된 初期 靑花白磁로서의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과 산화코발트(靑花)뿐만 아니라 산화동(釉裏紅)도 施文 재료로 같은 시기에 사용하고 있었다는 점이라 할 수 있다.

## 2. 중국 청화백자의 발생경위

다음으로 청화백자의 發生經緯에 대한 中國學者들의 견해는 馮先銘씨를 비롯하여 대부분 中國自生說을 주장하고 있다. 馮씨의 경우를 보면 종래 西歐의 學者들이 中國의 靑花白磁은 원료에서부터 제작기법에 이르기까지 페르시아에서 傳來되었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먼저 청화백자의 시문기법인 유약을 입히기 이전에 태토위에 문양을 먼저 그린 이른바 유약밑 시문기법은 외국에서 전래된 것이 아니라 중국에서는 고대로부터 사용되어온 기법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실례로 景德鎮에서 청화백자가 제작되기 훨씬 이전인 唐代의 長沙窯에서 9세기 중엽에 사용된 유약아래의 시문기법을 들고 있다.

湖南省長沙縣銅廣鎮瓦渣坪 가마터에서 유약아래 문양을 그린 唐代의 도자가 대량으로 출토되어 유약밑 시문기법 자체는 중국에서도 唐代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長沙窯에서 출토된 유물가운데는 유약아래 갈색으로 시문한 것(圖 15)도 있고 갈색과 녹색을 함께 사용한 것도 있고 드물게는 갈색과 남색으로 시문한 것(圖 16)도 있다. 이와 같이 唐나라 때 유약아래 문양을 그린 도자를 생산한 사실은 도자제작기법이 그 이전 시대에 비하여 더욱



圖 15. 青花褐彩壺, 湖南省 長沙市文物工作隊, 높이 22.9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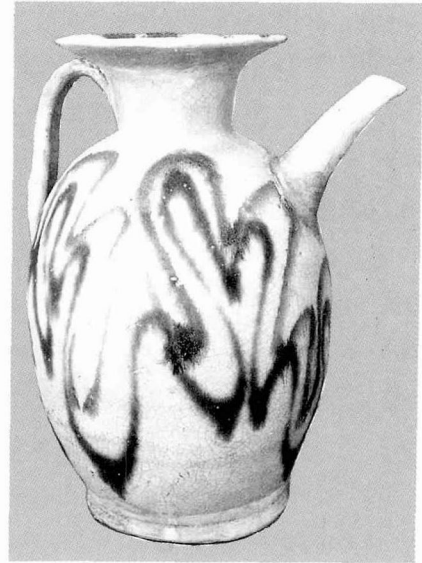


圖 16. 白釉褐藍雲文壺, 唐代, 湖南省 長沙市文物工作隊, 높이 21cm.



圖 17. 白釉黑花龍文瓶, 11-12世紀, 磁州窯 白鶴美術館, 높이 40.8cm.

발전했음을 입증할 뿐 아니라 이후의 도자제작에도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준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sup>19)</sup>. 이와 같은 유약아래 시문한 기법으로 만든 古陶磁의 例는 湖南省長沙 이외에도 江蘇省, 浙江省 等地的 古遺跡에서도 出土되었다고 한다. 특히 湖南省長沙 등지에서 제작된 도자를 日本 등지로 수출할 때는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浙江省寧波를 통하여 반출하였으므로 그 길목에 있는 江西省景德鎮에 이 유약밑 시문기법이 전파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北宋代에 들어와서는 中國江南長沙窯의 유약밑 시문기법이 北上하여 河北省磁州窯에 계승되었다고 보고 있다. 그리하여 磁州窯 陶磁에서 볼 수 있는 유약밑에 鐵繪施文한 文樣은 하안바탕위에 선명한 흑색으로 대조가 되어 종이나 비단 위에다 먹색으로만 그린 水墨畫같은(圖 17) 호

19) 馮先銘, 앞의 책 p.296.



圖 18. 白釉黑花모란文배개, 11-12世紀, 磁州窯  
지름 30.1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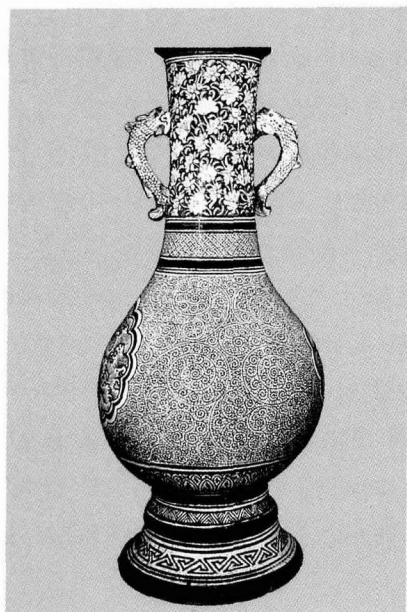


圖 19. 白地鐵繪唐草文瓶, 14世紀, 吉州窯  
대영박물관, 높이 44.8cm.

과가 있으므로 중국인의 기호에도 맞아서 발전된 것으로 보았다. 특히 官窯가 아닌 民窯로서 磁州窯는 서민들의 사랑을 받는 主題가 文樣으로 즐겨 사용되었고(圖 18) 이런 유약아래 철회시문한 기법은 널리 유포되어 오늘날의 河北 河南 山西 山東 江西 安徽 廣東 等地로 널리 보급되었다.

이렇게 해서 유약아래 산화코발트를 써서 시문한 청화백자가 발생할 수 있는 기술적 기초가 자생적으로 마련되었다고 중국학자들은 보고있다. 이러한 흰바탕의 흑색문양도자는 江西省에 있는 宋元代的 墳墓로부터 대량으로 출토되었고, 인접지역인 安徽省 江蘇省

에서도 소량이지만 출토되었다. 이와같은 흰색바탕에 정교하게 흑색문양을 그린 鐵繪文은 磁州窯 및 磁州窯 계통의 가마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吉州窯(圖 19)의 독자적인 문양으로 보고 있다. 1975년에 이러한 吉州窯가마터에서 청화백자 접시가 한 점 출토되어 경덕진과는 관계없이 독자적인 기반위에 吉州窯에서 청화백자가 제작된 증거로 보고 있다. 중국학자들은 南宋代에 유약밑에 鐵繪를 이용하여 흑색문양이 있는 도자를 量産하던 陶工들 가운데 우연히 코발트광석을 발견하게 되어 코발트(靑花)를 시문재료로 사용하게 된 것이 吉州에서 청화백자를 제작하게 된 경위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吉州窯 청화백자의 기원과 景德鎮 청화백자의 관계는 앞으로 더 객관적인 입장에서 연구해야할 필요성이 있음을 아울러 지적하고 있다<sup>20)</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景德鎮 靑花白磁는 唐代의 長沙窯에서 제작된 釉藥의 시문기법과 宋代의 鐵繪施文技

20) 馮先銘, 앞의 책 p.296.

法과 江西省吉州窯의 유약밑 정교한 黑色鐵繪技法 등이 발전하여 자연발생적으로 中國에서 내부적으로 나타난 결과라고 馮先銘씨 등 중국학자들은 주장하고 있다.

#### IV. 맺음말

위에서 검토한 중국청화백자의 기원에 대한 서구학자들의 견해와 중국학자들간의 근본적인 차이는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서구에서는 14세기 이전 기원설은 그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는데 비하여, 중국에서는 元代初期, 宋代 나아가서 唐代로까지 그 기원을 올려 추정하는데 있다. 그러면 청화백자의 唐代 起源說부터 간략하게 살펴보자. 첫째 唐代에 유약아래 청색으로 시문한 도자의 例는 그 숫자가 지극히 적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중국에서 1975년에 발굴한 江蘇省揚州의 唐代 城터에서 출토된 청화백자 베개 파편(圖 8)의 경우도 15,000점이상 출토된 도자기 파편 가운데 극소수에 불과한 예이다. 그리고 측정결과 코발트임이 밝혀졌다고 하나 앞서 馮先銘씨의 지적처럼 그 문양이 중국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페르시아적인 면이 강하여 중국인 학자 스스로도 당시의 중국도자문양과는 전혀 다른 문양임을 시인하고 있다. 더우기 그때 揚州는 국제무역의 중심지로 페르시아인 아랍인 등 이슬람 문화권에서 온 상인들이 常住하던 곳으로 이들이 이 청화문파편과 관련되었을 가능성을 중국인 학자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다.<sup>21)</sup> 그렇다면 청화백자의 中國 自生說도 부인되는 것일 뿐 아니라 이 청화백자파편은 그야말로 우연한 기회에 지극히 간헐적으로 시도되다 사라진 예로 밖에 볼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唐나라 때 유약아래 시문된 藍色 혹은 靑色文樣은 거의 대부분 그 재료가 코발트가 아닌 것으로 시험결과 나타났다.<sup>22)</sup> 唐三彩에 사용되어 藍色을 나타낸 것은 유약에 섞어 사용한 증색제로 低溫燒成에 사용된 것임으로 高溫燒成인 유약밑 시문기법을 사용한 청화백자의 제작과정과는 기본적으로 다르다. 뿐만 아니라 唐三彩에 남색을 내기위해 사용된 코발트를 Oxford 대학에서 시험해본 결과 그 성분이 페르시아산과 같은 것으로 판명되어 망간성분이 많이 포함된 중국산 코발트와는 다르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 그렇다면 揚州出土 靑花文베개 파편(圖 8)을 가지고서 청화백자의 唐代起源說을 주장하기에는 數的으로나 質的으로 매우 미흡하다고 보겠다.

毛文奇씨는 홍콩대학 馮平山박물관 소장의 藍彩三足鎊을 唐代 靑花白磁의 例로 들고 있다. 그러나 이 것은 考古學的인 發掘을 통하여 획득한 유물이 아닐뿐더러, 설사 唐代 것으로 河南

21) 馮先銘, 앞의 책 p.297.

22) 馮先銘, 앞의 책 p.297.

省洛陽에서 출토되었다고 하더라도 지극히 예외적인 것으로 보이며, 유약아래 시문된 藍彩가 코발트인지 아닌지도 科學的인 分析을 통하여 검증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三足鎊이 출토되었다고 하는 河南省洛陽인근에서 실행된 수많은 고고학적 발굴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파편이라고 할지라도 唐代 것으로 유약아래 시문된 청화의 예가 보고된 것이 없는 것으로 보아 청화백자의 기원을 현재로서는 唐代까지 끌어올리는 것은 무리라는게 외국학자는 물론 중국학자간에도 衆論이라고 하겠다.

둘째 청화백자의 宋代起源說이다. 馮先銘씨가 시인한 것처럼 중국본토에 사회주의 정부가 들어선 이래 수많은 고고학적 발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宋代青花白磁는 단 한점도 고고학적인 발굴을 통하여 온전한 상태로 발견된 점이 없다는 것이 사실이다. 중국연구자들이 청화백자의 송대 기원설을 주장하는 증거로 든 實例는 浙江省龍泉의 北宋時代 金沙塔塔基에서 나온 청화백자와 판(圖 7) 몇 점과 浙江省紹興의 南宋代後期 環翠塔塔基에서 발견된 청화백자와 판(圖 20)은 모두 판이다. 작은 판에 불과하기 때문에 문양의 특색이나 그릇의 형태도 파악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분묘가 아닌 塔基에서 나왔기 때문에 기단에서 출토된 유물이 塔의 제작연대와 반드시 일치한다고 보는데도 문제의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浙江省에서 宋代의 청화백자가마는 아직 확인된 바가 없기 때문에 이들 중국인 연구자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景德鎮에서 元代에 들어와 제작된 본격적인 청화백자에 비하여 200년이나 앞서서 막연하게 浙江省 어디에선가 제작되었으리라는 청화백자의 宋代起源說도 아직까지는 설득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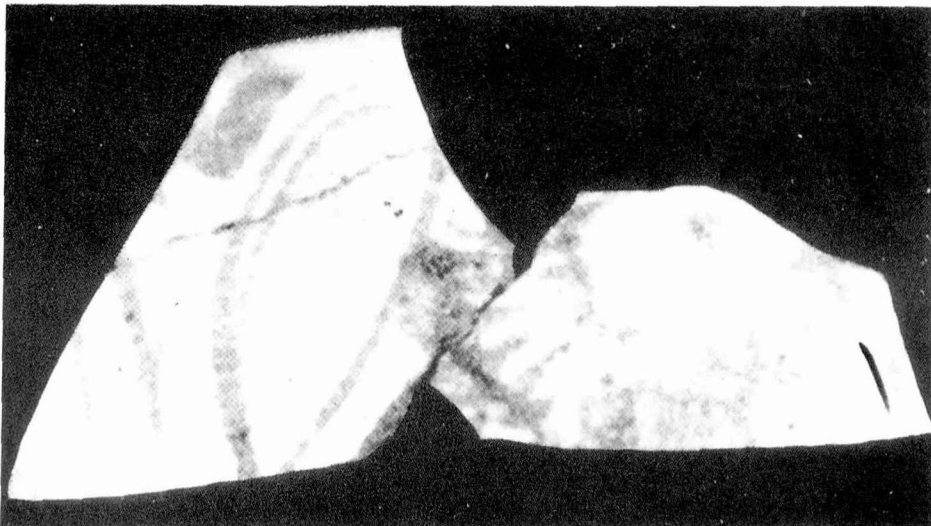


圖 20. 青花碗破片, 浙江省紹興環翠塔出土.

마지막으로 元代初期說은 年代를 확실하게 추정할 수 있는 紀年墓에서 출토되었을 뿐 아니라, 파편이 아닌 완전한 형태의 그릇으로 출토되었고 시문된 청화의 상태도 확실한 것이다. 1978년 浙江省杭州에서 元代至元丙子紀年墓에서 출토된 3점의 관음좌상(圖 10)은 출토된 묘의 묘비에 至元二年이라 기록되어있기 때문에 前至元 後至元중 어느 쪽인지 문제가 되었지만, 앞에서 지적한 증빙자료에 의하여 前至元임이 확실하기 때문에 至元二年은 1276년임이 확인되었다. 단지 觀音座像에 나타난 청화는 관음상의 머리카락, 눈, 눈썹과 복식의 중요부분에 부분적으로만 사용되어, 후기에 나타난 본격적인 청화백자문양과는 거리가 있다. 그러나 부분적이긴 하지만 청화를 사용한 구체적 실례로서는 충분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청화백자의 元代初期說을 입증할 수 있는 보다 더 설득력있는 實例로는 1975년 江西省九江市의 延祐六年(1319) 紀年墓에서 출토된 청화백자탑모양병(圖 12)을 들 수 있다. 이 병에는 삼층으로 나눈 구획안에 청화문양이 그려져 있는데 主文樣은 진하게 從屬文樣은 얇게 칠해져 있다. 뿐만 아니라 시문된 문양의 내용도 後代에 널리 사용된 문양과 공통된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청화백자 가운데 紀年銘文이 있는 것으로 가장 年代가 오랜 것은 런던의 Percival David Foundation of Chinese Art 에 있는 청화백자대화병 한쌍(圖 4-1)으로 至正十一年(1351)의 확실한 紀年銘(圖 4-2)이 있다. 이 병에 施文된 문양을 보면 문양배치와 필획선의 완벽성과 세련성을 보아 벌써 이 때는 청화백자의 시문기법이 완숙기에 달한 시기의 것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그릇 전체를 수평으로 여덟개의 구획으로 나눈 다음 胴体部分의 雲龍文을 비롯한 국화문, 파초문, 봉황문, 연화문, 파도문, 모란문, 팔보문양으로 적재적소에 시문하고 양손잡이인 코끼리 머리도 코발트로 단장시키고 있다. 이 한 쌍의 병은 江西省玉山縣의 道教집단의 사람들이 집안의 안전과 자손의 평안을 기도하며 이 병 한쌍을 기증한다는 내용의 願文(圖 4-2)이 있고, 기록된 연대는 至正十一年四月로 되어 있어 1351년에 제작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연대는 江西省景德鎮에서 元代青花白磁가 제작된 최후의 時期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 왜냐하면 그 다음해인 至正十二年에는 元이 몰락하고 明이 흥기하는 정치적 사회적 격변기로서 景德鎮에서 도자제작 자체가 중단된 상황이라고 추정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江西省九江市에서 출토된 청화탑모양병(圖 12)은 至正十一年의 銘文이 있는 P.D.F.의 청화쌍이병 한쌍보다는 32년 앞서고, 앞에서 거론한 至正十一年 觀音像 보다는 43년 늦은 것으로서 시기적으로 보아 이들 두 청화백자를 연결하는 교량적인 성격의 도자로 볼 수 있다. 따라서 14세기 一四分期 이전으로 청화백자의 기원이 올라가지 않으리라고 본 Margret Medley를 비롯한 서구학자의 견해에 대한 反論을 제기할 수 있는 좋은 증거라 할 수 있다. 이상 두 점의 元代初期 자료를 통하여 立證할 수 있는 내용은 1276년 경에는 陶瓷器面에 나

타난 文字와 文樣에 부분적으로 靑花(산화코발트)를 사용하기 시작했고 1319년경에는 도자문양에 모두 靑花를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라 하겠다. 현재까지 발굴된 자료를 가지고서는 청화백자의 제작범위와 규모를 정확하게 추정하기 어렵지만, 가장 본격적인 청화백자의 시문에 가까운 청화탑모양병이 이후에 청화백자생산의 중심지가 되는 景德鎮이 위치하고 있는 같은 江西省에서 출토되었다는 사실로서도 충분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청화탑모양병(圖 12)에 시문된 문양을 보면 元代後期の 청화백자의 시문에 나타난 완벽한 문양의 배치와 세련된 筆線의 구사와 비교하면 거리가 있지만, 여의두, 모란, 파초의 문양으로 그릇 표면을 세 개의 구획으로 나눈 점이나 문양의 종류가 후기의 것과 같다. 단지 치졸한 듯한 필선과 코발트안료의 사용기술이 미숙한 점이 두드러지지만 이것은 元代初期 청화백자가 시험단계인 점을 반영한다고 본다. 그리고 지금까지 시행된 수많은 발굴에도 불구하고 元代初期 청화백자는 그 實例가 극히 稀貴한 것으로 보아 그 제작범위가 시험적인 수준을 넘어서지 못했다고 추정할 수 있다. 그리고 Margaret Medley씨가 지적한 바와 같이 蔣祈가 1322년에서 1335년 사이에 기록한 『陶記略』에 靑花白磁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는 점도 위의 사실을 간접적으로 입증한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1976년에서 1984년 사이에 열 차례 걸쳐 우리나라 전남 신안 앞바다에서 인양된 22,000여점의 중국도자기 가운데 단 한 점의 청화백자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은 그 곳에 침몰한 元代木船의 침몰연대를 함께 인양된 木簡의 墨書紀年銘 등 여러 가지 증빙자료를 통하여 至治三年(1323)으로 推定할 수 있으므로<sup>23)</sup> 그 시기 이전에는 청화백자제작은 본궤도에 오르지 못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1319년에서 1330년대 사이에 元代靑花白磁의 제작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수준의 도자가 어떤 규모로 제작되었는지는 앞으로 더욱 신중하게 연구해야할 중요한 과제로 남게 되었다.

23) 金元東, 「新安에서 沈沒된 元代木船의 沈沒年月과 引揚된 陶磁의 編年에 관한 研究」, 『美術資料』 42號 (1988), pp.56-87.

[ABSTRACT]

## The Origin of Chinese Blue and White Wares

Kim Won-dong

The scholars of Chinese ceramics have not come to an agreement as to the origin of Chinese blue and white wares. The western scholarship on Chinese ceramics tends to emphasize the rational and scientific methodology and stylistic analysis, while the eastern, primarily, Chinese scholarship is based on the surveys on the kiln sites, archeological excavations and the knowledge of historical documents. The western researchers are represented by Sir Harry Garner, John Alexander Pope and Margaret Medley to name a few. The Chinese researchers dealing with the origin of underglaze blue include Feng Xian-ming, Li Ru-kuan and Mao Wen-qi.

The western point of view on the origin of Chinese blue and white was voiced by John Alexander Pope who believed broadly in the approximate date of the fourteenth century, disregarding the theory that it could be traced back to the Song period or even earlier. Sir Harry Garner indicated more definitely that the origin of Chinese underglaze blue wares could not go back earlier than the fourteenth century. Later Margaret Medley pointed out more specifically the period between 1322 and 1330 on the basis of the facts that first *Tao Ji Lue* written by Jiang Qi from 1322 to 1335 did not include any mention on blue and white wares and second the Yuan *qingbai* bottle in Dublin datable around 1330 demonstrated the stylistic similarity with the early Yuan underglaze blue.

The technique of underglaze blue was introduced through the sea route via Sumatra to China from Persia where cobalt had been used to embellish pottery in the Abbasid period around the end of the tenth or the eleventh century. They insist that the Persian origin of the technique of Chinese blue and white is proved by the chemical analysis of cobalt used in the early Chinese blue and white wares of the Yuan period which shows the obvious similarity with cobalt from Persia.

On the other hand Chinese researchers such as Feng Xian-ming insist that Chinese

blue and white wares can be traced back at least to the Northern Song period. They believe that the Song date is evidenced by blue and white shards from the pagoda bases in Longquan-xian, Zhejiang-sheng and Shaoxing-shi, Zhejiang-sheng. Chinese researchers claim that the cobalt used for the underglaze blue shards has similarity with Chinese cobalt mined in Jiangshan-xian, Zhejiang-sheng. Apart from the shards, an intact form of *qingbai* Avalokitesvara was excavated from a Yuan tomb datable 1276. This form was partially embellished with cobalt for the decoration of eyes, eyebrows and hair. Another example of the early blue and white wares was excavated from a tomb in Jiujiang-shi, Jiangxi-sheng datable 1319. Some Chinese researchers even think that the origin of Chinese underglaze blue can go back as early as the Tang period on the basis of underglaze blue shards from Yangzhou-shi, Jiangsu-sheng and a three legged *fu* at the museum of University of Hong Kong which is presumed to be from Loyang-shi, Henan-sheng.

However the claim that the origin of Chinese blue and white can go back to the Tang or Song period is not supported by any significant evidence at all in spite of the numerous excavations for the past forty odd years in Henan and Shanxi, the most important areas of Tang culture as well as in other major centers of Chinese ceramics in Jiangxi and Zhejiang. The numerous repeated excavations have not come out with even a single intact piece of blue and white ware of this early period. All other evidences presented by the Chinese scholars are merely shards from the sites of pagodas or wall. In the case of three-legged *fu*, it is believed to be supposedly from Loyang, but it is not acquired by a systematic archeological excavation.

Nonetheless the recent Chinese archeological excavations have brought significant evidences which push back the origin of Chinese underglaze blue earlier than 1322, *terminus post quem*, indicated by Margaret Medley. These evidences include three ceramic statues of Avalokitesvara partially embellished with cobalt and an underglaze blue jar in the shape of a pagoda respectively excavated from datable tombs. The former is datable 1276 and the latter 1322. The latter's date tells only three year difference from *terminus post quem* of Chinese blue and white that Margaret Medley suggested. Therefore it is now very obvious that concerned researchers with the origin of Chinese blue and white should pay close attention to this early Yuan period between 1276 and 1319 in order to shed light on the formative period of the early Chinese blue and white wares.